광주 산악인 김미곤 대장 가셔브룸 Ⅰ 등정

〈세계 제11위 히말라야 거봉〉

8000m급 10개째 정상 밟아… 윤욱현 대원과 함께

김미곤 대장

윤욱현 대원

광주지역 중견 산악인인 김미곤(41·한국도로공사산악팀) 대장과 윤욱현(37·광주학생산악연맹 사무국장·광주대산악회OB) 대원이 파키스탄 카라코람히말라야의 세계 제 11위 거봉인 가셔브룸 Ⅰ(Gasherbrum Ⅰ·8068m) 등정에 성공했다.

이번 등정으로 김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가운데 10개의 정상을 밟아 '14좌 완등'까지 4개 봉을 남겨두게 됐고, 윤 대원은 사실상 8000m급 첫 도전에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원정대와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김 원정대장과 윤 대원은 28일 오후 1시20분(현지시각, 한국시각 오전 9시20분)께 가셔브룸Ⅰ 등정에 성공했다. 원정대는 "두 대원은 현재 제3캠프를 향해 하산 중이며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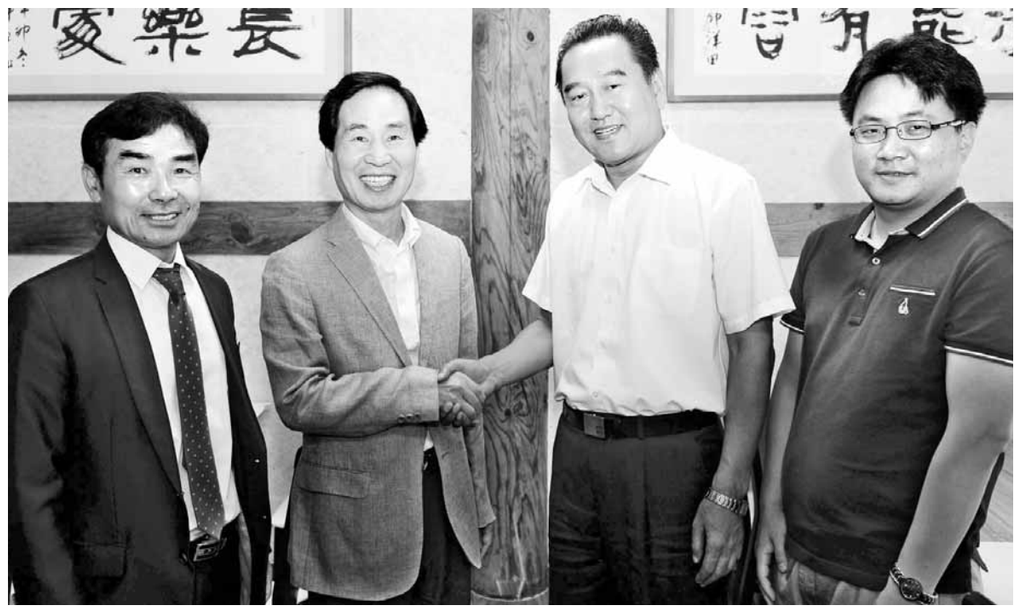
두 대원의 등정은 지난달 24일 파키스탄 현지로 떠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원정대는 다음달 10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알프스 3대 북벽을 등반한 후 고산 등반을 시작한 김 대장은 200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8848m)~로체(8516m)봉 연속 등정에 성공해 철인(鐵人)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번 등정으로 초오유(2000년), 마칼루(2001년), 가셔브룸Ⅱ(2006년), 다울라기리(2009년), 마나슬루(2011년), K2(2012년)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모두 10개를 올랐다.

지난해 5월에는 '2011마나슬루(Manaslu·8163m)원정대'에 참여해 등반 도중 숨진 동료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정상 등정까지 성공시켰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49·송원대산악회OB) 대장의 '자일 파트너'로서 가셔브룸Ⅱ와 에베레스트, 다울라기리 등 3개 봉을 함께 오르기도 했다.

이번 원정은 아웃도어브랜드 '블랙야크' 후원으로 이뤄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 산촌마을 공기 전국서 가장 '깨끗'

道산림연구소-국립산림과학원 최근 3년 조사

대기오염도 최저… 녹지훼손 적고 농작지 많아

화순 동암 봉하마을, 광양 봉강면 조령마을, 담양 창평 외동마을, 구례 산동 위안마을, 고흥 영남 양사마을, 영암 금정 아천마을….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전남지역 산촌 마을의 공기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산촌마을의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농도 등 오염물질이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윤병선)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전국 65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매월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이 최근 3년 평균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오존 등 모든 항목에서 전국 최저치를 조사됐다.

이 중 대기오염의 중요한 지표로 알려진 아황산가스는 최근 3년 평균 2.9ppb로 전국 최저농도였다.

이는 전국 평균(6.0ppb)의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인 경기지역의 33%가량, 비교적 깨끗한 산촌으로 알려진 강원지역의 절반에 해당한다. 아황산가스는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자동차배기가스 등이 주요 배출원인 이산화질소 역시 최근 3년 평균 전국 최저치인 2.2ppb로 전국 평균(5.1ppb)의 절반수준이다. 이는 전북지역의 20%, 경기지역의 33%가량에 불과하다.

각종 오염물질 증가로 인해 생성되는 오존농도는 최근 3년 평균 전국 최저치인 13.0ppb로 강원지역(29.3ppb)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전국 평균의 50% 수준이었다. 오존은 두통과 충혈, 메스꺼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전남 산촌마을 공기가 가장 깨끗한 것은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인 공장지대와 자동차가 적기 때문이다. 또 개발로 인한 녹지 훼손이 적고 친환경농업 경작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의 공기 청정도가 높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은퇴 및 전원생활은 물론 귀농·귀촌생활의 최적지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윤병선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공장지대가 많은 수도권과 인근 지역은 바람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반면, 전남지역 산골은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전남 산골의 자원을 활용하면 관광 수입과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등의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中흑룡강신문사 우호교류 협력키로

양 신문사 사장 광주서 협력방안 논의

광주일보사와 중국 흑룡강신문사가 광주·전남지역과 흑룡강성 지역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양 신문사의 우호교류 협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27일 광주를 방문한 흑룡강 신문사 한광천 사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만나 ▲광주·전남북 지역 조선족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증대 프로그램 수립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한 동북 3성 중국인들의 광주·전남 관광사업 추진 ▲양 지역 지자체와 상공인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신문사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조선족 다문화가정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분포해 있어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의 광주·전남지역 유입을 위한 방안을 양 지역 정부·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양 신문사는 또 기자 교류 및 기사의 상호 게재, 교류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양세열기자 hot@

/사진=나명주기자 mjna@

'추징금 미납' 전두환 예우금지 추진

민주 김영환 의원 대표 발의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26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경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추징금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큰 비용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확보를 위해 국내 자금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 부부와 직계 가족 및 친인척 일가의 금융재산, 채권, 부동산, 미술품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18일 전씨 일가의 사업체 및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림 300여점과 도자기류 등 미술품 500여점을 확보해 목록을 작성하고 정밀 감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이순자씨 명의로 된 30억원 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해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이며 처남 이창석씨 등 7명의 대여금고에서 압수한 통장 50여개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04년과 2008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씨의 비자금으로 인정된 167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신안씻김굿' 등 5개 道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전남도는 '조선장'과 '신안씻김굿' 등 5개 무형문화재를 새로 지정하고 '완도 장좌리 당제와 당굿'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조선장(造船匠)은 전통 목선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가거도 멸치잡이배 제작기술을 가진 신안의 조일옥(70)씨와 새우잡이 전통어선인 멍텅구리배 제작기술 보유자인 목포의 심정후(62)씨, 소형 화물선 전용인 떼마배 기능 보유자 완도 마광남(71)씨 등이 옛 기술을 잇고 있다.

신안 씻김굿은 신안 장산도와 비금·도초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무당이 주관해 치르는 종교적 제의다. 신안 씻김굿 보유자는 이귀인(84), 진금순(71), 유점자(75)씨 등이다.

화순 도장리 밭노래는 화순 도암면 도장리에서 전승되는 내륙 산간지역 여성들의 밭매기 공동체의 노동민요다. 또 영암 갈곡리 들소리는 영산강 하류에서 논농사를 하며 불렀던 노래다. /오광록기자 kroh@

해수부차관-박지사 면담, 황토 논란 해결될까

오늘 여수 적조현장 방문… 어민·의원 반발 확산

적조 방제를 위해 더 이상 황토를 뿌리지 않겠다는 전남도와 이를 반대하는 정부·어민 간 갈등과 관련, 오는 29일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29일 손재학 차관은 여수 적조 현장을 방문한 후 박 지사와도 대화의 자리를 갖는다.

앞서 전남도의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 금지 방침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황토를 뿌리지 않아 발생한 적조 피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적조주의보 발령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초기부터 황토살포, 피해발생 전 방류 등을 지시한 것이다.

또 어민들은 "황토를 뿌리게 해달라"며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남도의회 양경수 농수산위원장과 이광일(여수), 함채규(고흥) 의원도 지난 26일 지사실을 찾아 황토 사용 금지 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었다.

반면, 전남도는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효과 논란을 빚고 있는 황토 살포 대신, 양식장 물고기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28곳에 적조를 대비해 쌓아둔 12만5000t의 황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어민들이 소형 어선을 동원, 물보라를 일으켜 양식장에 다가오는 적조띠를 흩뿌리는 식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여수~고흥 등 남해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적조는 동해안인 경북 포항까지 확산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년 2학기
公認 國家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2013. 9. 2.(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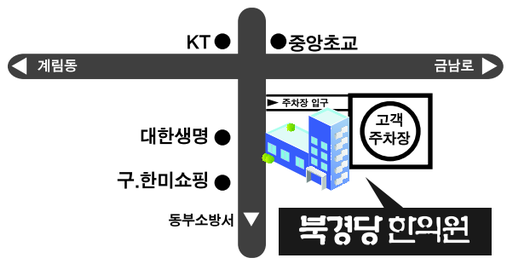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상가대출 * 아파트대출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차량대출 * 기타대출

신 용 / 정책자금대출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신용대출·일일상환 대출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직장인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한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 점 | 궁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